# 충남도립대학교 합격수기

충남도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18학번 12기 이재민

## ◎필기

첫 번째로 목차를 잡는 것입니다. 수험 특성상 방대한 양과 지엽적인 부분이 많아 외우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문서 작업처럼 내가 공부할 과목의 파트를 머릿속에 색인 작업을 하며 1회독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목차를 잡게 된다면 공부를 하다 또는 문제를 풀다 모르는 부분이 있어 기본서를 펼쳐 회독을 할 때 한 번에 펼쳐 내가 공부하며 빠져나간 부분을 빠르게 회독할 수 있어 회독수를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본기를 잡는 것입니다. 기본기를 잡는다란? 단순히 회독만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닌 '정확히 알고 가자'입니다. 회독은 적지만 정확히 아는 자와 두루뭉술 알지만 회독이 많은 자의 차이점은 실전에서 생깁니다. 그렇기에 저는 전체 수험 생활 중 80% 이상은 문제를 풀기보단 기본서를 읽고 강의를 많이 들을 정도로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선 첫 번째 방법인 목차를 잡았다면 2회독부턴 그 단어 및 제도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가며 가장 중요하고 출제가 자주되는 파트 중점으로 암기 30% 이해 70%의 공부를 했습니다. 세 번째 기출문제를 풀 땐 항상 왜?라는 습관을 가지기입니다. 많은 합격생분들이 기출만 풀어도 합격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시험 같은 경우 기출이 되었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긴 하지만 매 시험마다 살짝 변형을 시키는 문제가 출제되며 기출을 풀 때 단순 답 맞히기식 공부를 하던 수험생들은 필기에서 쓴맛을 경험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출을 풀 때 항상 이 지문이 왜 틀렸지?라는 의문을 품고 목차에 맞는 파트를 빠르게 펼쳐 그 부분을 읽고 이해하며 이와 유사하거나 반대되는 판례가 있다면 비교하여 맞는 지문이 되게끔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문제를 풀 때 지문을 보면 마인드 맵처럼 이와 유사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떠오르는 장점이 있기에 변형 문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행정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라면 다른 수험생들에 비해 출발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찰 수험생활을 시작했을 때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학교에서 배웠던 부분이 어느 정도 생각이 나며 그 부분이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의 인과관계 판례 헌법의 기본권 충돌 해결 등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수업을 집중하여 듣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그것이 나의 기본기를 다지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헌법**

목차를 잡아가며 1회도 그때 총론과 각론 파트의 구성을 알아갔습니다. 이후 방대한 양을 줄이기 위해 내가 버려야 할 파트와 중점을 두는 파트를 선별하는 작업을 가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 헌법 총론의 헌정사와 헌법관 및 지방자치제도, 군사제도, 선거제도를 과감히 버렸습니다.두 번째로 버린 파트만큼 중점을 두는 파트는 어떻게든 틀리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깊게 공부하였습니다. 기존의 헌법은 맹목적으로 위, 합헌 만 잘 외우면 고득점을 맞기 쉬운 과목이었으나 출제 경향이 바뀌어 세부적으로 묻는 지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기에 모르는 판례와 헷갈리는 기본권 등을 정확히 알아가기 위해 CASENOTE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판례 번호를 검색하여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이유 등을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자주 출제가 되는 판례 EX) 제대군인 가산점, 양심적 병역거부 등 같은 경우 위헌인지 합헌이지만 공부하는 것이 아닌 어느 기본권이 제한되고 어느 부분을 침해를 하고 기본권 주체 및 자기관련성 등 논점이 된 부분을 자세하게 공부하였습니다.

**○형사법**

형법 같은 경우 목차를 잡을 때 어느 파트에 어떤 것이 구성되어 있는지 큰 틀을 잡는 작업을 하며 1회독을 하였고, 수사와 증거 같은 경우 목차를 잡을 때 시간의 순서 및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목차를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란 무엇이고 수사를 하기에 앞서 수사기관이 수사의 단서를 잡아야 하는데 수사의 단서가 무엇이 있는지, 단서를 찾았다면 수사를 하기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고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임의수사를 할 것인지 강제수사를 할 것인지 등등 이러한 기본기를 충분히 잡고 2회독을 진행 시 항상 법전이라는 앱을 실행하여 내가 공부할 파트의 조문을 읽는 습관을 길들였습니다. 기출문제 같은 경우 경찰 기출문제뿐만 아닌 다른 직렬의 형사법 문제도 풀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른 직렬 기출문제는 공기출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저는 사례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형사법 12년~24년 출제 시험을 전부 다 풀어보았습니다. 판례 같은 경우 법리와 사실관계를 모르고 단순히 키워드와 유.무죄만을 공부하면 시험에 있어 많은 난항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ASENOTE 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모르는 판례의 번호를 검색하여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를 읽고 이해하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사실관계와 판례이유를 정확히 공부하였다면 지문을 읽을 때 이것은 무엇 때문에 죄가 성립이 되는지 안되

는지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 ○경찰학

경찰 수험생활 중 경찰학 과목이 가장 쥐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양이 많고 이해보단 암기 위주의 과목이라 많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경찰학을 공부할 때 목차를 가장 중요시 여겼습니다. 다른 과목 같은 경우 이해를 하다 보면 저절로 목차가 잡히지만 경찰학 같은 경우 암기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외우다 보면 내가 지금 어느 파트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며 다른 파트로 넘어갈 때 앞에 공부한 부분이 금방 날아가는 휘발성이 강한 과목입니다. 그렇기에 파트를 넘어가기 전 목차를 말로 내뱉으며 한번 짚고 넘어가는 습관을 길들이며 전반적인 큰 틀을 알아가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양이 많다 보니 외우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문제 중 가장 적게 나오는 파트인 경찰 한국사와 비교 경찰 및 외사경찰을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한 파트만큼 나머지 파트는 꽉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여 요약집 및 기출문제를 통해 중요하고 자주 출제되는 파트의 단어들과 제도를 정확히 숙지하며 다 회독을 하였습니다. 또한 내가 숙지한 단어와 제도의 뜻이 맞는지 그리고 경찰학에서 나오는 숫자들을 외우기 위해 빈칸 노트 등을 이용하여 경찰학 공부를 하였습니다.

## ○모의고사

저는 경찰 수험 전반에 있어 모의고사를 3회분 풀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학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 너무 지엽적인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어 자주 풀게 될 경우 어려운 문제들은 잘 맞추지만 정작 중요하고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헷갈리거나 까먹게 되어 틀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한 과목당 100점 방지용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그것을 틀린다고 하여 합격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 즉, 문제풀이 스킬을 터득한다는 생각으로 시험 전 3회분 이하로 풀고 나머지는 기본서 및 기출문제집을 중점으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체력 및 가산점**

우선 가산점 같은 경우 5점을 꼭 다 채워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23년 2차 시험에 4점을 채우고 1점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그 1점 때문에 10등 이상 밀리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5점 다 채우셔야 합니다. 체력 같은 경우 필기 시작할 때 같이 병행하시길 바랍니다. 23년 1차를 준비하며 필기 중점을 두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체력은 한 달이면 금방 늘겠지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필기만 준비하다 막상 합격을 하고 체력을 준비하다 보니 자세 숙지와 파울 및 센서 감각을 터득하기엔 이미 늦어버렸고 갑작스럽게 운동을 하다 보니 부상을 입었습니다. 필기 합격 후 체력 학원을 가보면 필합 이후 체력을 준비하시는 분들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체대 입시나 선수 생활을 하던 사람이 아닌 분들은 체력 과락을 맞으시거나 낮은 점수로 인해 면접에서 최종 불합격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를 하며 체력 병행은 선택이 아닌 무조건 해야 하는 의무적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면접**

**(개별면접)**

충남 도립대 경찰행정과 학생이라면 이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교수님과 현직 경찰관분이 면접에 대한 답변의 갈피를 정말 잘 잡아주셨습니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고 모르는 질문이 들어오면 모른다고 답변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추상적인 답변보단 구체적인 답변을 하면 정말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면접을 준비하면서 난감한 질문과 모르는 질문에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지?, 모르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면 감점 당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두려움에 억지로 답변을 하다 보면 오히려 위험한 발언

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급급해지는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교수님과 경찰관분이 한 가지 예시를 들어주시며 답변의 방향을 잡아주신 결과 실제 면접에서 면접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며 흡족해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체력시험 이후 면접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교수님께 도움받으시고 그 도움에 믿음을 가지고 면접을 본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별면접을 준비할 때 자기소개, 지원 동기, 장. 단점을 중점으로 다양한 경험을 찾는 시간을 가지고 이러한 것이 준비되었을 땐 내가 생

각하는 경찰상 및 덕목, 앞으로 입직하면 나는 어떠한 경찰이 되고 싶은 지를 생각하게 된다면 개별 면접은 충분히 쉽게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단면접)**

집단 면접은 시사, 이슈, 정책, 개정 법령 등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집단을 준비하기 위해 카카오톡 뉴스 봇을 통해 경찰 관련 뉴스를 매일 보았으며, 경찰학 책도 다시 보았습니다. 또한 집단면접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제. 개정 법령이 있는지 예를 들어 중대 범죄 신상 공개 법이 제정되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실제 24년 1차 면접 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홈페이지를 찾아보는 것이 가장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면접을 준비하면서 체력 학원 때 친해진 형, 동생들과 스터디를 만들어 했습니다. 집단을 준비할 땐 경찰청 홈페이지 카테고리에 있는 모든 항목을 다 찾아보며 단순히 넘어갈 법한 주제들도 놓치지 않고 연습했습니다. 그 결과 24년 1차 집단 주제들은 대부분 경찰청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들에서 출제되어 조원들은 준비한 답변을 잘하여 전원 합격했습니다. 이처럼 집단면접은 면접학원 자료를 보기보단 뉴스와 경찰청 홈페이지를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